



제목	A History of Modern Iran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08. 7. 28.
저자	Ervand Abrahamian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228
ISBN 또는 ISSN	978-0521528917

**내용 요약**

이 책은 1910년대에서 1979년 이슬람 혁명 발발까지의 이란 정치사에 관한 책으로서 저자의 관심의 핵심은 이란인이다. 저자가 생각하기에 이란인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수십만 명의 이란인들이 사망한 이란이라크 전쟁이다.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한 채 전쟁의 폐해만 안게 된 이란이라크 전쟁의 무의미함을 주장하였다. 또 하나는 레자 팔레비 치세와 이슬람 혁명이었다.

1926~1941년까지 팔레비의 치세는 문화적 쇠퇴, 외교 정책의 실패로 점철된 시기이다. 1941~1953년까지는 ‘민족주의자 대공위시대(The nationalist interregnum)’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근대화 추구라는 명목 하에 미국의 입김에 좌우되는 시기였다. 1960~1976년까지는 과도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이때의 경제 성장률은 중국의 성장 속도를 능가하였다. 하지만 팔레비 치하의 경제 성장은 그 이익이 사회 계층 모두에게 분배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각한 소득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반면 이슬람 공화국 시기는 경제 성장률은 낮았으나 시골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높아진 것을 예로 보아도 전체 지역별 소득과 일인당 소득이 균형을 이루었다. 결론적으로 이슬람 혁명은 단순히 종교적인 감정에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 소득 불균형이라는 팔레비의 실패한 사회경제 정책의 결과였다. 이처럼 저자는 팔레비 치세의 치적보다는 단점을 부각시키고, 이슬람 혁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을 상세히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